

# 대만 한류의 한계

— 〈미스터 션샤인〉 PTT를 중심으로

황선미\*

## 〈目 次〉

1. 들어가며
2. PTT 공간 속의 〈미스터 션샤인〉 게시물
3.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공론
  - 1) 장르 친숙성—항일과 독립
  - 2) 애국의식 선양
  - 3) 주연배우에 대한 논란
4. 나오며

## 1. 들어가며

2019년 11월에 대만계 캐나다인 배우 가오이샹(高以翔·Godfrey Gao)이 중국의 한 예능프로그램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을 두고, 대만 유명 방송인 우종시엔(吳宗憲·Jacky Wu)이 “한국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sup>1)</sup> 물론 이는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가 유명한 언론인으로서 사회 문화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대만의 부정적 인식은 오래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한류’의 근원지로서, ‘한류’는 대만을 통해 아시아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1) 中 예능 촬영 중 사망에...“한국 예능 때문” 탓한 대만 방송인, 세계일보, 2019.12.16.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6508537?OutUrl=naver> 검색일: 2020.06.18

대만에서 대중문화를 뜻하는 ‘하한(哈韓)’이라는 의미의 한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0월에 GTV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된 김수현 작가의 〈불꽃〉부터이다. 1990년대 후반 중국 문화권에서 시작해 그 세력을 대만까지 미쳤던 ‘한류’는 〈불꽃〉을 계기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대만 최대 케이블 TV인 GTV에서 방영된 〈불꽃〉은 외국드라마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하한이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sup>2)</sup> 대만에는 현재 5개의 지상파 TV채널, 104개 유선 방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 1%만 되어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시청률인데, 특히 2004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무려 시청률 6.22%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대만에서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었다.<sup>3)</sup>

이후 대만에서의 한류는 일본 열풍의 서브컬처에서 벗어나 주류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대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2018년 7월에 대만에서 〈미스터 션샤인〉이 방영되었다. 〈미스터 션샤인〉은 tvN에서 2018년 7월 7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방영된 토일 드라마로, 1900년부터 1907년까지 구한말 시대 의병(義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은숙 작가와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이 〈태양의 후예〉(2016년), 〈쓸쓸하고 찬란한 神—도깨비〉(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작한 작품이다. 대만에서는 ‘陽光先生’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동시 방영되었다.

대만에서 동시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반응은 인터넷 공간에서 꽤나 뜨거웠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자유공간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말을 빌린다면, 이는 ‘다양한 공론장의 본격적 형성’으로 요약될 것이다. 인터넷의 공론장은 게시판이나 카페 활동 등을 통하여 대화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표현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만에서 방영되는 한국드라마의 경우 대만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인 PTT (Professional Technology Temple)의 ‘KoreaDrama(韓劇)’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황선미, 「대만 한류의 양면성, 열광과 외면」, 『중국학연구』 83권, 2018, 86쪽.

3)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지구촌 한류현황 I—아시아, 대양주』, 2016.12, 53쪽.

〈미스터 션샤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2월 26일,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1위는 〈미스터 션샤인〉(4.7%)이었다. 그 다음으로 〈태양의 후예〉(3.7%), 〈쓸쓸하고 찬란한 神—도깨비〉(3.4%), 〈김비서가 왜 그럴까〉(2.9%)가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드라마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공, 인도, 말레이시아에서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밖에 영국, UAE,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라질, 대만에서는 〈쓸쓸하고 찬란한 神—도깨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sup>4)</sup> 대만에서 〈미스터 션샤인〉은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TOP 10위 안에도 진입하지 못했다.<sup>5)</sup>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2018년 9월 30일에 마지막 회를 방송한 〈미스터 션샤인〉이 10위 안에 진입조차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미스터 션샤인〉이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드라마로 손꼽혔던 것에 비해 “대만에서는 그다지 핫한 편은”<sup>6)</sup> 아니었다. 대만 한 언론사는 “현재까지(6회 방영 후)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토론 열기는 그다지 뜨겁지 않다. 미디어의 노출도가 낮진 않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보도로, 유행어나 주변의 열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sup>7)</sup>며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본고는 PTT에 게시된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미스터 션샤인〉이 PTT 공간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소통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소통을 근거로 〈미스터 션샤인〉이 대만에서 성공하지 못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2019, 52쪽.

5) 위의 글, 149쪽.

6) 2018年十部最好看韓劇票選出爐! 《金秘書》第七、《百日的郎君》第二……第一名竟是這一部, 2018.11.16. <https://www.elle.com/tw/entertainment/drama/g25152378/2018-best-korean-drama/> 검색일: 2020.03.19.

7)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Mr. Sunshine 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 2018.07.23.

《지식의 고고학(Archeology of Knowledge)》에서 제기한 담론(discourse)에 주목했다. 그는 담론에 담긴 사물이나 사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형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의 담론에서 여러 진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담론이 형성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담론을 형성하는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대만 입장에서 한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교류 전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2. PTT 공간 속의 〈미스터 션샤인〉 게시글

PTT는 대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다. 중국어 정식 명칭은 ‘피티티스예팡(批踢踢實業坊)’이다. PTT는 1995년에 대만대학교(台灣大學) 정보공학부 학생에 의해 개설된 BBS(Bulletin Board System)였다. 개설되었을 당시는 대만대학교의 BBS 서클(circle)에 의해 관리, 운영되었다. 근년에는 BBS이외에 휴대앱과 열람 전용 웹 브라우저도 만들어 PTT 게시자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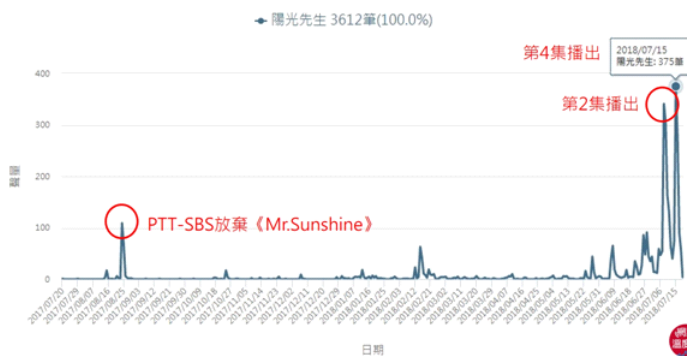
PTT에는 대만대학의 각 학부와 동아리 그룹 이외에 정치, 학술, 음악, 생활, 취미,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관심으로 코로나 게시판이 형성되는 등 폭넓은 장르에 속하는 게시판이 있다. 각 게시판에는 관리자가 따로 존재한다. 이용자는 게시판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으며, 게시글에 대한 회신 및 댓글도 남길 수 있다. 올라온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을 남길 경우에는 ‘推文’, ‘虛聲’, ‘注解’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남기면 된다. 게시글이 추천할 만하거나, 글쓴이에 대한 격려나 지지를 보낼 경우에는 ‘추천글(推文)’을 선택하고, 게시글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과격한 발언, 내용과 상관없는 글, 혹은 광고성 글일 경우에는 야유를 나타내는 ‘거짓말(虛聲)’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해(注解)’를 선택하여 댓글을 남긴다.<sup>8)</sup> 이처럼 PTT에는 글을 게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쌍방향소통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공론장의 정식 명칭은 ‘KoreaDrama(韓劇)’이다. 한국 TV 드라마에 관한 모든 정보와 감상 등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KoreaDrama(韓劇)’는 2006년에 정식으로 개설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열띤 공론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에 방영된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부터이다. 이후 한국의 많은 드라마가 PTT 공간을 중심으로 공론화되었다. 또한, ‘라이브문(LIVE文)’이라고 불리는 스레드(thread)를 만들어 대만에서 아직 공식으로 방영되지 않은 한국 드라마에 관해서도 한국에서의 방송 시간에 ‘라이브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한다. 스레드 내에서는 처음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덧붙여진다.

<미스터 션샤인>은 대만에서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전부터 한국에서의 촬영 개시 선언, 캐스팅, 높은 제작비 등에 관한 기사가 주의를 끌었는데, 그 중 SBS에서의 방송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데일리 뷰 인터넷 온도계(DailyView網路溫度計)에서 제공한 KEYPO빅데이터키워드(KEYPO大數據關鍵引擎)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sup>9)</sup>

【도표 1】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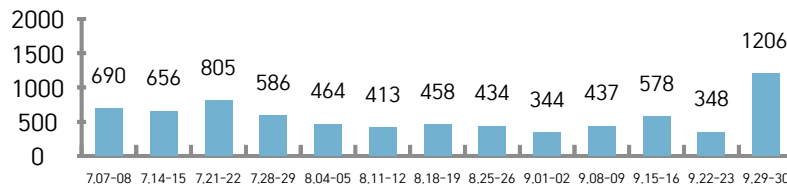
8) PTT教學文 新手老手都必看, 批踢踢實業坊.

9) 「憲哥」叔叔戀贏了!《陽光先生》高收視讓「它」嘔到吐血. Daily View 網路溫度計, 2018.07.20. <https://dailyview.tw/popular/detail/2160> 검색일: 2020.03.23

이 검색 엔진의 분석기간은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이며, PTT, 블로그,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색 1, 2위는 <미스터 션샤인> 2회와 4회 방영 때이며, 3위는 높은 제작비로 인해 SBS가 <미스터 션샤인>의 편성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SBS 포기 미스터 션샤인(SBS放棄《Mr. Sunshine》)'이라는 검색어가 차지했다. 2017년 8월 24일에 PTT의 한 게시자는 한국 연합뉴스의 「“회당 15억은 못줘”...SBS가 김은숙의 '션샤인' 포기한 이유」라는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sup>10)</sup>

PTT에 게시된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게시글은 모두 68개이며, 각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총 7,419개이다.

【도표 2】 <미스터 션샤인> PTT 게시글



게시글 투고수는 방송 개시 직후인 첫 주와 둘째 주는 600개 이상이 올라왔다가, 5, 6회가 방영되는 7월 21일에는 8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영 중간에는 3, 400개 정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9월 30일에는 1200여 개로 피크를 맞이했다.

게시글의 유형은 LIVE, 감상, 잡담, 정보,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는 신문기사나 정보의 번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출연 배우에 관한 보도 기사 외에 드라마 공식 SNS 계정의 게시글 번역이 포함된다. 감상문은 드라마의

10) PTT, KoreaDrama, bboy0223(My Little Prince), “每集15億元” SBS放棄《Mr. Sunshine》的原因, 2017.08.24.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전개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는 드라마 스토리에 대한 질문, 배우 주연 작품에 대한 토론, 드라마 속 대사 정리, OST 감상, 시청률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게시글은 방송 직전부터 7월 초반까지는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소개, 즉 〈태양의 후예〉와 〈쓸쓸하고 찬란한 神—도깨비〉에 이은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의 세 번째 합작품이며, 높은 시청률을 갱신했다는 등의 드라마에 대한 소개 및 〈미스터 션샤인〉 예고 영상 공개 등이 주류를 이루다가 8월 중반부터는 드라마 스토리와 출연 배우의 연기에 대한 토론이 증가했다. 특히 마지막 회 방송 종료 직후에는 감상문이 폭주했다.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하면, 스토리 전개에 대한 글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등장인물 관계도가 2위, 배우연기 및 OST 감상, 작가 평가 등과 같은 키워드로 압축된다. PTT에 올라온 글을 분석해보면, 〈미스터 션샤인〉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의견으로 나뉜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1. 스토리가 재미있다. 2. 작가의 언어적 유희가 빛난다. 3.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 등이며, 부정적 의견으로는 1. 남녀주인공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라마에 몰입하기가 힘들다. 2. 애국의식을 선양한다. 3. 한국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 내용을 따라가기 벅하다. 등이다. 부정적 의견은 〈미스터 션샤인〉이 6회 방영 이후 투고수가 현저히 감소한 요인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 3.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공론

PTT에는 〈미스터 션샤인〉이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높은 시청률을 자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미스터 션샤인〉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기를 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이 재미없다고도 할 수 없다. 투자 규모와 촬영 기법, 김은숙 작가의 언어적 유희 등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좋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청자는 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를 휩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sup>11)</sup> 또한,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인기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할 만한 흥행작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외에서의 열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왜, 대만 시청자들은 〈미스터 션샤인〉의 해외 인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1회만 보고 포기”<sup>13)</sup>할 수밖에 없었을까.

### 1) 장르 친숙성—항일과 독립

〈미스터 션샤인〉의 첫 회 방영 후에 PTT에는 한국 역사에 관한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다. 〈미스터 션샤인〉 1회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소개와 함께 고종 8년(1871, 신미년)에 미국이 조선과의 수교를 요구하며 광성보에 포격을 가한 ‘신미양요’가 그려졌다. 드라마 평론을 주로 다루는 대만 향취평(尙劇評)은 시청자들이 〈미스터 션샤인〉을 포기하는 이유가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발단이 되어 5년 후인 1871년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조선과 싸운 전투가 신미양요이다. 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한국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열강의 침략이 한반도를 갈라놓고, 양반인 권신이 부패하여 평민을 괴롭히고, 나라가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대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비통한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만인은 드라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sup>14)</sup> 역사적 배경을 잘 몰라 드라마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은 PTT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역사적 시대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sup>15)</sup>, “재미있는데... 역사를 잘 몰라서...”<sup>16)</sup>처럼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11)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12) PTT, KoreaDrama, zzauber, 「Mr. Sunshine 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에 대한 댓글, 2018.07.23.

13) PTT, KoreaDrama, eggwraprice,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8.07.23.

14) 尙劇評:《陽光先生》愛國兼顧愛情 諜對諜結局難料, TVBS, 2018.08.17.

<https://news.tvbs.com.tw/ttalk/detail/life/13426> 검색일: 2020.04.40

15) PTT, KoreaDrama, auikeey, 「Mr. Sunshine 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에 대한 댓글, 2018.07.23.

16) PTT, KoreaDrama, alexshu,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8.07.23.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만 시청자에게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시대극)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장르였다.

시청자는 특정 장르의 드라마를 일관되게 선호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친숙함이 주는 감정적인 편안함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이전에 경험하여 친숙해진 사물이나 현상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애착을 갖는다.<sup>17)</sup> 〈미스터 션샤인〉은 구한말 즉, 1900년부터 1907년까지의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설정되어있다. 대만 신문 『매일 톱기사(每日頭條)』는 「이병헌+김태리도 ‘미스터 션샤인’을 구하지 못해, 주입이 심해, 시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이전 한국 드라마에서 출현한 적이 없었다.”<sup>18)</sup>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조선 과학수사대 별순검〉(2005), 〈재중원〉(2010), 〈독립문〉(1984) 등이 대만에서 방영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대만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는 2019년 6월 1일, 데일리뷰 인터넷 온도계에서 발표한 역대 ‘한국드라마 차트 100’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도표 3】 한국드라마 차트 100

순위	드라마 명	순위	드라마 명
1	我的私生活 (그녀의 사생활)	11	如此擲眼 (눈이 무시계)
2	觸及真心 (진심이 닿다)	12	羅曼史是別冊附錄 (로맨스는 별책부록)
3	VOICE 3 (보이스 3)	13	熱血司祭 (열혈사제)
4	皇后的品格 (황후의 품격)	14	會讀心術的那小子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5	SKY CASTLE (스카이 캐슬)	15	先熱情地打掃吧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6	阿爾罕布拉宮的回憶 (알함브라궁전의 추억)	16	各位國民 (국민 여러분)
7	李屍朝鮮 (킹덤)	17	太陽的後裔 (태양의 후예)
8	男朋友 (남자친구)	18	KILL IT (킬잇)
9	金秘書為何那樣	19	孤單又癡癡的神—鬼怪

17) 김경목, 「대 흥행(block-buster) 드라마의 조건 : 드라마의 친숙성, 주연배우 지명도, 인터넷 기사(記事) 등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2, 2009, 30쪽.

18) 李秉憲+金泰梨也無法拯救《陽光先生》, 注水嚴重, 影響觀感, 每日頭條, 2018.08.10. <https://kknews.cc/entertainment/v6r2g32.html> 검색일:2020.07.02.

순위	드라마 명	순위	드라마 명
	(김비서가 왜 그럴까)		(쓸쓸하고 찬란한 神—도깨비)
10	圈套 (트랩)	20	自白 (자백)

위의 자료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KEYPO빅데이터키 워드를 통해 네티즌의 토론이나 채팅을 수집, 분석 제작한 역대 한국드라마 차트 100 중 20위까지만 정리한 것이다.<sup>19)</sup> 자료 수집 기간의 영향으로 1위에서 16위까지는 주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30일에 마지막 회를 방송한 <미스터 션샤인>은 100위 중 3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sup>20)</sup> 100편의 드라마 중 94편이 현대극이었으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극이 6편<sup>21)</sup>, 구한말 시대의 향일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이 유일하다. 2000년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는 대만 시청자들이 이 시대의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9) 從百大韓劇嚴選4套必睇佳作! 鬼怪僅排21位? 冠軍絕對係眾望所歸, 香港01, 2019.06.01. (테일러 뷰 인터넷 온도계는 대만판과 홍콩판이 있다. 한국드라마 차트 100에 대한 조사는 대만의 PTT와 블로그 등에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공된 자료이다. 하지만, 이 자료를 대만판에서 안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香港01의 기사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 20) 21위부터 50위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item(아이템) 22. priest驅魔者(프리스트) 23. 加油吧威基基(오라차차 와이키키) 24. 世上最漂亮的我的女兒(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25. 監獄醫生(닥터 프리즈너) 26. 客—the guest(손) 27. 頂級巨星柳白(톱스타 유백이) 28. 附身(빙의) 29. Voice(보이스) 30. 初次見面我愛你(초면에 사랑합니다) 31. 神的測驗: 重啓(신의 퀴즈: 리부트) 32. 我身後的陶斯(내 뒤에 테리우스) 33. 陽光先生(미스터 션샤인) 34. 就算死也喜歡(죽어도 좋아) 35. 獬豸(헤치) 36. 主君的太陽(주군의 태양) 37. 赤月青日(붉은달 푸른해) 38. 信號signal(시그널) 39. 福秀回來了(복수가 돌아왔다) 40. 冬季戀歌(겨울연가) 41. 我的ID是江南美人(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42. 拜托媽媽(부탁해요 엄마) 43. 馬成的喜悅(마성의 기쁨) 44. Vagabond(배가본드) 45. 因為初戀是第一次(첫사랑은 처음이라서) 46. 藍色生死戀(가을동화) 47. 我的大叔(나의 아저씨) 48. 百日的郎君(백일의 낭군님) 49. 加油吧威基基 2(오라차차 와이키키 2) 50. 阿斯達年代記(아스달연대기).
- 21) 100위 안에 올라간 역사극으로는 7위 경덤(李屍朝鮮), 35위 헤치(獬豸), 53위 왕이 된 남자(成爲王的男人), 65위 구름미 그린 달빛(雲畫의 月光), 82위 화랑(花郎), 91위 군주—가면의 주인(君主—假面的主人) 등이다.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화랑>을 제외하고 나머지 5편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다.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은 결국 구한말 혼돈 시대의 이름 없는 ‘아무개’ 항일 의병들이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1930년에 일어난 원주민의 항일 봉기운동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극렬한 항일운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항일 의병에 대한 공감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2018년 일본대만교류협회(日本台灣交流協會)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만을 제외하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지역)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59%가 일본이라 대답했으며, 8%가 중국, 4%가 미국, 3%가 스위스와 한국이었다. 또한, “향후 대만이 가장 친해야 할 나라(지역)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37%에 해당하는 대만인이 일본이라 대답했으며, 한국은 1%로 6위를 차지했다.<sup>22)</sup> 이처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대만에서 항일, 독립과 같은 소재는 공감감을 얻기 힘들다. 이는 항일을 소재로 한 2015년에 상영된 〈암살〉, 2016년의 〈밀정〉 등의 영화가 한국에서는 잇따라 흥행에 성공한 것에 비해 대만에서는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구한말 시대의 항일에 대한 한국의 역사관에 대만 시청자들의 공감감이 따르지 않는다면, 구한말 시대의 항일을 배경으로 한 한국드라마가 “인기를 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sup>23)</sup>라는 PTT의 한 게시자의 말처럼, 친숙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2) 애국의식 선양

〈미스터 션샤인〉은 의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끝까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우는 의병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 의병은 “알고 있소.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허나 일본의 노예가 돼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sup>24)</sup>라고 소신을 밝혔다. 〈미스터 션샤인〉이 중반부로 갈수록 의병들의 이야기에 집중되면서 애국의식 선양이 농후해져 시청이 힘들다는 지적이 PTT에 등장했다.

22) 公益財團法人日本台灣交流協會, 「2018年度對日世論調査」, 2019.11.13., 8~9쪽.

23)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24) 〈미스터 션샤인〉 중 대사, 24회, 2018.09.30.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큰 이유는 ‘애국의식’이다. 지난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인 ‘신미양요’ 때를 이야기 했는데, 이런 얽히고설킨 역사적 상황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맥락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주인공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복잡한 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 여주인공의 순수하고 고결한 대한민국 정서에 대해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야 집중할 수 있었으며, 조국 조선에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는 남자주인공, 친일하는 두 번째 남자, 투항하며 변절한 세 번째 남자 등등, 실로 엄청난 ‘국가’의식 구조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2회가 방영되기 전부터 애국의식이 점점 더 짙어지는데, 사실 대만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sup>25)</sup>

위 인용문의 게시자는 〈미스터 션샤인〉이 뜨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애국 의식 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게시글에 지지를 보내는 다수의 댓글도 존재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sup>26)</sup>, “한국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애국, 민족의식이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sup>27)</sup>, “애국의식이 너무 강렬한 한국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sup>28)</sup> 극이 진행될수록 “애국의식이 점점 더 짙어져”<sup>29)</sup>, “사실 대만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sup>30)</sup>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발자취는 당시 역사왜곡이라는 논란을 애국심으로 바꿔버리는데<sup>31)</sup> 일조할 만큼 애국, 민족의식이 농후해졌다.

대만은 한국이 국가의식과 민족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로 ‘강한 민족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

25)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26) PTT, KoreaDrama, sunkist74, 「Mr. Sunshine 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에 대한 댓글, 2018.07.24.

27) PTT, KoreaDrama, ancientfish,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8.07.24.

28) PTT, KoreaDrama, NickeyOrli,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8.07.24.

29)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30) 위의 게시글.

31) [굿바이 미스터 션샤인②] 역사 왜곡? ‘애국심’만 남았다, 시사위크, 2018.10.01.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14065> 검색일: 2020.07.04

다.<sup>32)</sup> 한국에 비해 대만의 내셔널리즘 발현은 1980년대 민주화 요구 운동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대만인의 정체성은 크게 변모되고 있다. 대만인 정체성을 강하게 갖게 해준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의 해바라기학생운동이다. 이 운동은 여당인 국민당이 중국과의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비준을 강행한 데에 대해 학생들과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입법원(국회) 회의장을 3주간 남짓(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점거 농성한 사회운동을 가리킨다.

해바라기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만은 독립적이다 혹은 대만은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당당히 말하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천연독(天然獨)’이라고 부른다. ‘천연독’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타고난 독립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보이는 대만 정체성, 대만 내셔널리즘의 발현은 급진적인 것이었다. 40대 이상의 세대는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정권에서 ‘중국어’ 교육을 받았고, 중국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한 반면, 젊은 세대들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천연독 세대는 독립 성향이 강하고, “자신은 대만인이다”라는 대만 정체성이 강하다. 대만 정체성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중화 내셔널리즘을 강요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국이 강요하는 ‘국가’, ‘국민’, ‘민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미스터 션샤인〉의 항일, 애국에 투영되어, 드라마 시청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 3) 주연배우에 대한 논란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란은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이었다. 하지만 대만의 인터넷 게시판에 일어난 논란은 주연배우와 남녀주인공의 나이 차이였다. 노비인 부모가 김판사 나으리 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한

32) 곽추문, 「한류의 대만 진출 역사 및 대만인의 한류 인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7, 71쪽.

뒤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미군 장교가 되어 돌아온 유진 초이라는 남자 주인공 역은 이병헌이 맡았으며, 의병활동 중에 동지의 배신으로 부모가 죽은 후 사대부 집 할아버지에게 인도되어 낮에는 명문 양반가 규수로 살고 밤에는 항일 총잡이가 되는 고애신 역으로 김태리가 캐스팅되었다. 공식 방영도 하기 전에 남녀 주인공의 나이 차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PTT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PTT의 'kazuyuki (世風日下)'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게시자는 「미스터 선샤인이 뜨지 못하는 이유(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라는 게시글에서 〈미스터 선샤인〉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남녀 주인공의 '나이차이'로 들었다.

감정선에 쉽게 몰입할 수 없어요. 다들 47세의 이병헌과 28세의 여주인공 김태리는 '삼촌과 조카 사이' 같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sup>33)</sup>

위의 게시글에 대해 찬성과 지지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극중 설정도 20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럼 정말 아버지와 딸 사이 같네요.”<sup>34)</sup>, “드라마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요.”<sup>35)</sup>, “저는 남녀주인공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싫어요. 그래서 안 보고요.”<sup>36)</sup>,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삼촌과 조카 같아요.”<sup>37)</sup> 이처럼 댓글 네티즌들은 남녀주인공이 ‘아버지와 딸 사이’, ‘삼촌과 조카 사이’ 같다고 하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고 있지만, 사실 불만의 화살은 이병헌에게 향하고 있었다.

“김은숙 작가가 이병헌을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저도 여러분처럼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는 반드시 히트를 칠 것을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그녀가 이병헌에게 기회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sup>38)</sup>처럼 방

33)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34) PTT, KoreaDrama, irenehuang15, 「憲哥「父女戀」默契絕佳 當《陽光先生》에 대한 댓글, 2018.06.28.

35) PTT, KoreaDrama, acat168,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8.06.28.

36) PTT, KoreaDrama, CjWmC, 「陽光先生—李瑞鎮是不是更適合?」에 대한 댓글, 2018.07.15.

37)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앞의 게시글, 2018.07.23.

38)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위의 게시글, 2018.07.23.

영 중에도 이병헌의 캐스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병헌은 이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라는 미 해병대 장교 역을 맡았다. 그는 노비가정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이 되던 해, 주인 나으리 김판서는 유진의 아버지를 때려죽이고, 어머니는 자식을 살린 후 우물에 투신했다. 유진만이 살아남아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미군 장교역을 소화할 수 있는 유창한 영어가 가능한 배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6회를 보고나서야, 김은숙 작가가 왜 이병헌을 캐스팅 했는지 이해는 갔지만”<sup>39)</sup> 여전히 감정선에 몰입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남자 주인공의 캐스팅에 대한 불만은 높은 제작비로 SBS가 방영 포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했다. “톱스타 이병헌을 포기하면 되는데”<sup>40)</sup>, “왜 이병헌만을 고집하는지”<sup>41)</sup>, “톱스타를 포기하면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청률도 올릴 수 있을걸요.”<sup>42)</sup>, “이병헌으로 캐스팅되면 보고 싶지 않네요.”<sup>43)</sup>처럼 남자 주인공 캐스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물에서 주연배우는 소비자가 특정 영상물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명도가 높은 배우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연기를 연상시킨다.<sup>44)</sup> 이병헌은 여러 번의 스캔들로 대만 대중들에게 그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자료 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요인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가 34.1%로 가장 높으며<sup>45)</sup>, 대만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국 배우는 1위 공유, 2위 이민호 등으로 이병헌은 10위권 안에 진입하지 못했다.<sup>46)</sup> 또한 가장 최근 자료로서 2020년 4월 24일자 대만의 한 연예신문에서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남자

39) 위의 게시글.

40) PTT, KoreaDrama, ioiocala, 「每集15億元SBS放棄〈Mr.Sunshine〉的原因」에 대한 댓글, 2017.08.24.

41) PTT, KoreaDrama, angelastu,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7.08.24.

42) PTT, KoreaDrama, micky1225,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7.08.24.

43) PTT, KoreaDrama, baiyao, 위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2017.08.24.

44) 김경목, 앞의 글, 30쪽.

4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앞의 글, 2019, 149쪽.

46) 위의 글, 152쪽.

배우 10명을 발표했는데, 1위가 송중기, 2위 이민우, 3위는 김수현 등으로 이병헌은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조사, 발표한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sup>47)</sup>

주연 배우는 상품 브랜드로서 호소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를테면, 시청자는 주연배우를 보고 드라마의 질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일부의 학자들은 주연배우가 영상물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sup>48)</sup> 이 사실을 감안하다면 주연배우에 대한 대만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미스터 션샤인>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4. 나오며

본고는 PTT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미스터 션샤인>에 관한 게시글을 통해, <미스터 션샤인>을 바라보는 대만 시청자들의 시선에 주목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은 유독 대만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했다. 본고는 그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항일과 독립에 관한 장르 친숙성, 둘째, 애국의식 선양, 셋째, 주연배우에 대한 논란 등이다. 항일 역사에 친숙하지 않은 대만 시청자들에게 구한말 시대의 항일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중국이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만 '천연독' 젊은 층에게 애국의식과 민족주의 선양이 짙은 드라마는 향후에도 대만 시청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를 수출함에 있어,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인기 있을 것이라는 단편적인 공식에서 벗어나, 그 나라의 역사관, 사회 보편적 인식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대만은 '한류'의 근원지이며, 한류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반

47) 揭秘韓國十大男神排行榜名單, 台媒眼中最帥的韓國男明星居然是, 第一娛樂趣聞, 2020.04.24.  
<http://www.mfqqx.com/yule/2017/0427/1295926.html> 검색일: 2020.07.02

48) 김경목, 앞의 글, 30쪽.



짝 현상으로 꾸준히 2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만은 한국 및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친근감이나 애착의 보편화가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만의 시각은 대만 사회 및 대만의 내셔널리즘과도 상호관계하며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대만에서도 반드시 인기를 끌 것이라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의 '한류'가 양국 정부가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양사회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류'는 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치적 시책 등과 별개로 개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쌍방향 교류에 의한 한대 우호관계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드라마를 통한 부단한 한대 문화 교류가 그 희망을 제시해 줄 것이다.

#### 〈參考文獻〉

- 곽추문, 「한류의 대만 진출 역사 및 대만인의 한류 인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7.
- 김경목, 「대 흥행(block-buster) 드라마의 조건 : 드라마의 친숙성, 주연배우 지명도, 인터넷 기사(記事) 등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12, 2009.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지구촌 한류현황 I—아시아, 대양주』, 2016.12.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2019.
- 황선미, 「대만 한류의 양면성, 열광과 외면」, 『중국학연구』83권, 2018.
- [굿바이 미스터 선샤인②] 역사 왜곡? '애국심'만 남았다, 시사위크, 2018.10.01.
- 대만 3명중 2명 “나는 대만인”·대만 독립 지지율도 27.7% 기록, The ASIAN, 2020.07.06.
- 中 예능 촬영 중 사망에...“한국 예능 때문” 탓한 대만 방송인, 세계일보, 2019.12.16.
- 從百大韓劇嚴選4套必睇佳作!鬼怪僅排21位?冠軍絕對係眾望所歸, 香港01, 2019.06.01.
- 揭秘韓國十大男神排行榜名單, 台媒眼中最帥的韓國男明星居然是, 第一娛樂趣聞, 2020.04.24.
- 李秉憲+金泰梨也無法拯救《陽光先生》, 注水嚴重, 影響觀感, 每日頭條, 2018.08.10.

- 秀劇評：《陽光先生》愛國兼顧愛情 謀對謀結局難料, TVBS, 2018.08.17.
- 「憲哥」叔姪戀贏了！《陽光先生》高收視讓「它」嘔到吐血, Daily View 網路溫度計, 2018.07.20.
- 2018年十部最好看韓劇票選出爐！《金秘書》第七、《百日的郎君》第二……第一名竟是這一部, 2018.11.16.
- PTT教學文 新手老手都必看, 批踢踢實業坊.
- PTT, KoreaDrama, bboy0223(My Little Prince), “每集15億元”SBS放棄(Mr. Sunshine)的原因, 2017.08.24.
- PTT, KoreaDrama, sycshen, 「憲哥」父女戀「默契絕佳, 當《陽光先生》」, 2018.06.28.
- PTT, KoreaDrama, tpc302, 「陽光先生—李瑞鎮是不是更適合?」, 2018.07.15.
- PTT, KoreaDrama, kazuyuki (世風日下), Mr. Sunshine 陽光先生熱不起來的原因, 2018.07.23.
- PTT, KoreaDrama, ioiocala, 2017.08.24.
- PTT, KoreaDrama, angelastu, 2017.08.24.
- PTT, KoreaDrama, micky1225, 2017.08.24.
- PTT, KoreaDrama, baiyao, 2017.08.24.
- PTT, KoreaDrama, irenehuang15, 2018.06.28.
- PTT, KoreaDrama, acat168, 2018.06.28.
- PTT, KoreaDrama, CjWmC, 2018.07.15.
- PTT, KoreaDrama, zzauber, 2018.07.23.
- PTT, KoreaDrama, eggwraprice, 2018.07.23.
- PTT, KoreaDrama, auikeey, 2018.07.23.
- PTT, KoreaDrama, alexshu, 2018.07.23.
- PTT, KoreaDrama, sunkist74, 2018.07.24.
- PTT, KoreaDrama, ancientfish, 2018.07.24.
- PTT, KoreaDrama, NickeyOrli, 2018.07.24.
- 公益財團法人日本台灣交流協會, 「2018年度對日世論調查」, 2019.11.13.

〈Abstract〉

Limitations of Korean Wave in Taiwan  
— Focusing on “Mr. Sunshine” PTT

Hwang, Sun-Mi

While Korean dramas continue to be loved by Taiwanese viewers, in July 2018, “Mr. Sunshine” was aired. “Mr. Sunshine” was a Saturday-Sunday drama aired on tvN from July 7, 2018 to September 30, 2018, with a story of a righteous army in the era of the Korea Empire between 1900 and 1907. It was translated in Chinese in Taiwan under the title, ‘阳光先生(Mr. Sunshine)’, and was the first Korean drama to be aired simultaneously on Netflix.

“Mr. Sunshine” became very popular all over the world. Favorite dramas vary by country, in South Africa, India, and Malaysia, the preference for “Mr. Sunshine” was overwhelmingly high, and in other countries as well such as the United Kingdom, UAE,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Indonesia, the preference for it was found to be high. Meanwhile, in Brazil and Taiwan, “Lonely and Brilliant God-Dokkaebi” had the highest preference. “Mr. Sunshine” did not even enter the top 10 in the list of “Preferred Korean Drama Top 10”. Therefore, for postings about a Korean drama “Mr. Sunshine” published on PT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Mr. Sunshine” is evaluated and communicated in the PTT space. Based on this communica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Mr. Sunshine” to be unsuccessful in Taiwan. PTT is an Internet bulletin board that forms the largest online community in Taiwan. The official name in Chinese is the ‘PTT Bulletin Board System (批踢踢实业坊)’. In the case of a Korean drama, it i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the public sphere in ‘Korea Drama(韩剧)’ of PTT, a Taiwan bulletin board syste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Korean Wave in Taiwanese position, and in the future, there will be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aiwan.

78 中國文化研究 第49輯

Key words: Mr. Sunshine, PTT, Taiwan, Korean Wave, Internet posting, Korean drama

이 논문은 2020년 7월 9일에 접수되어 2020년 8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